

이코노 & 비즈 피플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장

“대불산단, 해양플랜트·레저 선박 중심 재편”

“대불산단지는 업종고도화를 통해 해양플랜트 및 레저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는 동시에 대기업 의존도 또한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현수(52)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은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박 블록제작이 주종이었던 대불산단지 소재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석탄 운반하역기 같은 해양플랜트와 소형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만드는 기업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며 “조선업 경기가 불안할 때에도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업종 전환에 산업단지공단이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불산단지는 지난해 정부의 구조고도화 대상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산업단지 인프라 혁신작업에 들어갔다.

업종 전환 자생력 확보 지원 최선
첨단·하남, 청년 일하는 산단으로

산단공 호남본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 진행에 따라 대기업 협력업체가 주를 이루던 대불산단은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조선업 클러스터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첨단 및 하남산업단지 등 광주지역 산단도 고용개선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산단은 밤이 되면 모든 전등이 꺼지는 암흑지대였다. 하지만 구조고도화를 통해 산단 블록별로 커피숍과 놀이공간 등 문화

적 여건을 재배치하면 기존과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며 “밤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단을 만들어 청년층이 모여드는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호남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도 내놓았다. 최근 정부의 기초정책인 ‘규제 개혁’에 관해서도 산단공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광주지역 산업단지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한 융복합, 기술

협업을 강화하고, 기업성장종합지원 플랫폼을 통해 기술개발과 자금, 인력, 수출 등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혁신산업단지 실현을 위해 첨단, 융복합산업 입주공간을 확충하고, 창의·혁신클러스터 구축 촉진과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기능도 체계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과 관련, 이 본부장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금융, 인증제도 등의 규제가 환경이 달라진 현재에도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산단공 호남본부는 주도적으로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발굴해,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오설록 티하우스 신세계 광주점’ 개소

호남 1호점... 차문화 체험

한국의 대표 차(茶) 브랜드 ‘오설록’(www.osulloc.com)이 프리미엄 차문화 체험공간 ‘오설록 티하우스 신세계 광주점’(사진)을 4일 개소한다.

오설록 티하우스 광주점은 광주, 전남·북권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문을 연 1호점으로, 최근 개소한 부산 광복동점을 비롯, 제주 티뮤지엄, 서울 명동점 등에 이어 전국 13번째 매장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오설록 티하우스는 매장 내부에 오설록만의 한국적 후발효차 ‘삼다연’을 숙성시키는 ‘삼나무통’으로 디자인했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색상을 활용,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메뉴는 순수

차와 블렌딩티는 물론 제주 유기농 다원에서 키운 녹차잎을 곁들여 만든 원료로 이용한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규성 오설록 마케팅 팀장은 “이번 광주점 오픈은 오설록이 뿌리를 둔 제주와 서울·수도권 지역을 넘어, 트렌디한 차(茶)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객들과 한 발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매력적인 차 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설록 티하우스 신세계 광주점에 오는 오픈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경품 응모행사와 모든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외국인의 힘 ... 코스피 한때 2000선 돌파

1997.25포인트 장 마감

‘외국인의 힘’이 국내 증시를 이끌 연속 연중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27포인트(0.26%) 오른 1997.2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000.13으로 장을 출발해 장중 연중 최고치인 2001.26을 찍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8.57포인트(1.56%) 상승한 557.65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4일(561.55)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한 것은 단연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1조511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단숨에 1940선에서 2000선 직전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미국 나스닥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한국, 브라질 등 신흥국 증시로 이동했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장을 2011.34로 마감하고 줄곧 박스권에 머물러온 코스피가 고점인 2050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339억원, 코스닥시장에서 57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기관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1721억원, 258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 우위였다. 차익거래에서 7억원, 비차익거래에서 1200억원 순매수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상승했다. 운수창고업종 상승률이 1.33%로 가장 컸고 전기전자(1.03%), 증권(1.01%), 전기가스(0.96%), 의약품(0.56%)도 올랐다. 반면 통신업(-3.74%), 보험(-0.64%), 기계(-0.46%) 등은 내렸다. /연광뉴스



‘미란다 커’ 워킹화 인기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스포츠 매장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란다 커’ 워킹화가 선보였다. 미란다 커가 모델로 나와 유명해진 이 워킹화는 여성의 속옷 소재로 많이 쓰이는 실리콘(붕제라인 없이 옷 전체를 실로 짜는 의류제조 기술)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착용감과 통기성이 좋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식품관 탄생

30억 들여 8년만에 리뉴얼

전국 유명 맛집 대거 유치

광주신세계 식품매장이 8년 만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맛과 멋이 살아 있는 신개념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재탄생한다.

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30억 원을 투입한 식품관 리뉴얼 공사를 일부 마치고, 간편조리식 코너인 ‘밸리&스위트’를 4일 1차로 개장한다. 오는 5월 중순경에는 농수산 신선식품 전문코너인 ‘후레쉬마켓’을 오픈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른바 ‘먹방’ 방송이 유행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프리미엄 식품관 조성에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음식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해내는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신세계는 청담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SSG 푸드마켓’,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경기점 식품관 ‘후레쉬마켓’을 지역 상권에 맞게 벤치마킹했다. 여기에 서울, 부산 등 전국각지의 유명 맛집을 대거 유치해 다양화된 지역

민의 입맛까지 사로잡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식품관 리뉴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밸리&스위트’코너다. 일본 케이크 명장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프리미엄 베이커리 ‘더 메나쥬리’, 서울의 대표적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가게로 유명한 ‘소프트리’가 입점한다.

또 동물모양의 케이크로 유명한 ‘더 메나쥬리’는 청담동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SSG 푸드마켓’에서 처음 선보인 후 마니아층이 늘어 신세계 강남점, 경기점에 차례로 입점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유가농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는 망고, 초코볼 등 다양한 토핑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고객들에 큰 인기를 끈 매장이다.

한편 줄서서 먹는 떡볶이로 유명한 ‘공수간’, 부산 명물 김밥집 ‘고봉민 김밥’, 색다른 미각의 특제소스가 유명한 칠판요리집 ‘팔선생’, 경양식과 한식 요리를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카페아모레’ 등 지역에선 만나기 힘들었던 이색 유명 맛집들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량 8.7% 증가

거래대금은 12% 늘어

지난달(3월) 광주전남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

한국거래소광주사무소가 2일 발표한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시장 동

향 자료에 따르면 전월에 비해 거래량은 8.72%, 거래대금은 12.4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의 경우 2561만주(2억9382만주→3억1943만주), 거래대금은 2379억원(1조9127억원→2조1506억원)이다. 지역투자자들이 전체 거래

에서 차지한 비중도 거래량(2.37%→2.40%), 거래대금(1.59%→1.63%) 모두 늘었다.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 상위(5위까지)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거래량은 신일산업, KODEX레버리지, 유니캡, 미래산업, SH에너지화학 순이었고 거래대금은 KODEX레버리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차, 삼성중공업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Advertisement for 'Special Halal Event' (특별 할인행사) featuring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dress. Text includes: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두레유류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Advertisement for 'Wedding Information' (결혼정보) by Imperium. Text includes: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결혼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홍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회원' table with columns for Male (男) and Female (女) listing professions and ages, '재혼' table with columns for Male (男) and Female (女) listing professions and ages, '임페리얼클럽' logo,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완주시 사천동) (063) 275-7766'